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국민 엄마와는 ‘다른’ 엄마 보여줄게요”

김혜자 ‘마더’로 스크린 컴백... “봉준호 감독이 죽어 있던 세포 깨워줬다”

‘국민 어머니’ 김혜자가 ‘마요네즈’ (1999) 이후 10년 만에 ‘마더’로 스크린에 돌아왔다. 그동안 영화 출연을 고사해 왔던 김혜자는 봉준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엄마는 기꺼이 선택했고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감성적인 어머니 연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많이 괴롭혀 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가 생각지 못했던 것, 내가 표현이 부족했던 부분을 잘 찾아내 얘기해 줬어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세포를 노크해서 깨워줬죠.” 김혜자는 5월 14일 개봉되는 ‘마더’에서 나잇값을 못하는 어수룩한 아들 도준(원빈) 때문에 애를 태우다가 결국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도준 때문에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엄마 역을 맡았다. 봉 감독은 어린 시절 김혜자의 연기에 반해 김혜자를 주연으로 세운 영화를 오랫동안 구상해 왔다. ‘살인의 추억’ (2003)을 끝낸 이후 ‘마더’를 생각해 냈지만 ‘괴물’(2006) 연을 결정한 탓에 ‘마더’는 5년 뒤로 미뤄졌다. “봉 감독이 5년 전부터 얘기해서 갑자

기 출연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촬영을 시작할 때는 한참 전부터 얘기를 들어서인지 벌써 촬영을 다했다는 느낌이었죠.” 김혜자는 ‘마더’가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혜자는 아들 역을 맡은 배우 원빈에 대해 “첫인상이 아름답고 반듯해 보이는 청년이었다”며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군 제대 이후 스크린에 처음 돌아온 원빈은 어수룩하고 순수한 청년인 도준에 대해 “순수함이라는 것이 연기하기에 어렵기는 했지만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휴뉴스



광주지역 연구생 리그전 '적당한 타협' 1국 4보(59~77).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analysis tex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음 4월 4일 癸卯). Daily horoscope for various zodiac signs.

EBS and EBS플러스1, 2 program schedules. Lists variou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program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text, dialogue, and vocabulary.